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1주 】

인도 1부 : 김재홍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64. 기뻐하며 경배하세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의 유속이 정말 빠릅니다. 세월이 광음 같다는 비유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대변합니다. 시간은 유한하기에 우리는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광채 없는 삶에서는 시간이 우리를 떠메고 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시간을 떠메고 가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세월의 유한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갈수록 빈곤해져 갑니다. 불안한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육체의 유익만 채우기에 급급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삶의 더 깊은 곳을 향하지 않으면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단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롬 8:11 인도자
- ▲ 교 독 문 73. 이사야 65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이재훈 목사

2부 응 답 송 찬양대

2부 찬 양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함께

▲ 성경봉독 암 8:11-14 1부: 인도자/2부: 이재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아버지의 품으로	마중물찬양대
	II. 은혜의 강가로	청파찬양대
말 씀	목마른 사람들	김기석 목사
거듭의기도		다 함께
2부 특 송		홍순복 권사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p>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이 가르치는 편법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갈증과 헛헛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p> <p>다 함 께 : 아멘.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또한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별하심을 넘어서는 주님의 자비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숨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속히 기도에 응답하셔서 빈곤해진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주님, 몸을 굽혀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아멘.</p>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낯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시편 11편 - 난세에 벗에게 답하다

答客難답객난

-시편에 대한 오경웅의 해석과 송대선 목사의 해설-

友人勸我學飛鳥 飛入深山避災殃 君不見群小彎弓箭在弦 欲於暗中射賢良
우인권아학비조 비입심산피재앙 군불견군소만궁전재현 옥어암중사현량
國家根基已崩潰 賢人焉有濟時方
국가근기이붕괴 현인언유제시방
我答友人言 此語何荒唐 人能恃主終致祥 何必入山去自藏
아답우인언 차어하황당 인능시주종치상 하필입산거자장
雅瑋坐天廷 雙目炯炯察世人
아위좌천정 쌍목형형찰세인
賢良蒙鍛鍊 所以玉其成 惟彼兇與暴 乃爲主所憎
현량몽단련 소이옥기성 유피흉여폭 내위주소증
爲惡招天火 雷霆作杯羹 爲善邀天眷 常得承歡欣
위악초천화 뇌정작배갱 위선요천권 상득승환흔

벗이 권하네. 하늘 나는 새를 좀 배워 보라고. 깊은 산 날아들어 재앙 피하지 않느냐고. 그대 보지 못하는가. 소인배가 암중에서 활시위 메겨서는 지혜로운 이들을 쏘려는 것을. 나라의 근간 이미 무너졌는데 현인이라도 이때는 어쩔 수 없는 법이라고.

나 벗에게 답하네. 이 무슨 믿음없는 소리란 말인가. 모름지기 사람이란 하늘 의지하여 끝내 그 은혜를 입어야지 어찌해서 산으로 숨으려 하는가. 야훼 주님 하늘 궁전 좌정하셔서 형형히 이 땅을 꿰뚫어보시네. 어질고 현명한 이들 단련되어서 끝내는 옥처럼 다듬어지고, 악하고 흉폭한 저 무리들은 주님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 악행을 저지름은 하늘 불덩이 청함이니 우레와 번개 국그릇 쏟듯 부어지리라. 선을 행하는 이는 야훼 돌보심 입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

제목인 ‘답객난’은 한漢의 동방삭이 쓴 글의 제목을 따온 것이다. 그의 글 답객난은 주객의 문답형식으로 한 무제의 통일시대를 살면서 자신과 같은 인제가 제대로 쓰이지 못함을 불평하면서 통치자의 무분별함을 폭로한 글이다. 이후 많은 문장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본래 히브리 시는 하느님께로 피신하는 노래이나 오경웅은 이 시편을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진퇴를 고민하는 지식인의 고뇌의 노래로 바꾸면서 그 중심에 신앙을 불어넣었다.

시인은 산에 숨는 것으로, 문제를 외면하는 삶을 택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 연단을 통해 푸름을 잃지 않는 옥처럼 되리라는 소망이 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이는 시련을 피할 길만 찾아 헤매나 지혜로운 이는 이 시련으로 자신을 다듬는다. 왕양명이 강조한 바, 일을 당하여 자신을 닦아야 진정한 공부이지 일을 당하여 어쩔 줄 모르고 염려에 잡혀 있다면 공부가 무슨 소용있겠느냐 하였다.

2절과 5절의 현량賢良은 덕행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란 뜻으로 한서漢書 [공광전]孔光傳에 ‘백성을 학대하며 탐오하는 무리들을 물리치며 지혜롭고 덕행 있는 관리들을 들이라’ 고 하였다. 오경웅은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현량으로 번역하였다.

3절의 시방時方은 송원宋元이래 중의학의 처방을 의미한다. 그 이전의 것을 고방古方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라를 구제할 방법을 뜻한다.

5절의 옥은 예로부터 옥을 다듬는 것으로 선비의 학문과 덕행이 깊어감을 비유하였다. 옥의 아름다움은 오덕의 갓춤인데 윤기가 흘러 온화한 것은 인仁의 덕이며, 무늬가 비취 속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의義의 덕이며, 소리가 낭랑하여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지智의 덕이며 깨어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것은 용勇의 덕이며 날카로우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결潔의 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옥이라 하더라도 다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였다.

처서處暑

문태준

연어온 개가 울타리 아래 땅그늘을 파뎠다
짐승이 집에 맞지 않는다 싶어 낮에 다른 집에 주었다
별에 넣어두었던 고추를 걷고 양철로 덮었는데
밤이 되니 이슬이 졌다 방충망으로는 여치와 풀벌레가
딱 붙어서 문설주처럼 꿈적대지 않는다
가을이 오는가, 샅썩까지 심어둔 옥수수대엔 그림자가 깊다
갈색으로 말라가는 옥수수 수염을 타고 들어간 바람이
이빨을 꼭 깨물고 빠져 나온다
가을이 오는가, 감나무는 감을 달고 이파리 까칠하다
나무에게도 제 몸 빚어 자식을 낳는 일 그런 성싶다
지게가 집 쪽으로 받쳐 있으면 집을 떠메고 간다기에
달 점점 차가워지는 밤 지게를 산 쪽으로 받친다
이름은 모르나 귀익은 산새소리 알은채 벌처럼 시끄럽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국지연 권혁순 박혜경b김경혜 김기석 김희우 김명하 오형일 김성아 김성우 박유경
김수경 김애순 김용규 송 명 김용진 박효선 김종현 성귀옥 김충실 조아라 김필순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박영희 박재영 이현정 박해남 박호승 백원선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성지현 송인선 신문희 심창현 심해성 오자영 유수진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연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건호a김보민 이나라 이민관 송용화 이용석
이정우 장윤지 이준립 이지원 이치립 강상연 임 영 정경례 임찬양 장기풍 전아영
전찬익 이은자 정다운 홍예선 정이든 정성훈 정연희 정영우 김지운 조관행 홍선희
조미선 조수아 조준범 정한샘 최미자 최윤선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형경 노진래
한지원 허정호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김경미 김숙현 김영희 김인석 이선화 김태정 김필순 노신후 박숙미 방종미 서단이
김정완 서로마 서연준 신기호 신정아 안현호 오현우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지하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조소영 채일석 최병민 서지연 최지은 함정희 황현성
이오복 무명6

생일감사헌금

김정화 윤정덕 이시경 정성식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남홍 선우영 김영호 이영하 최가운 무명1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창조절 : 다음주일부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교사수련회 :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가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광주 퇴촌면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들의 가을학기 준비와 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청과장학금 수여식 : 2019년 청과장학금 수여식이 임원회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 등산동호회 : 등산 동호회를 새로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정린 집사 (010-4087-49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타인 속에 있는 흠보다 자신 속에 있는 들보에 집중하십시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살후 3:1-5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김기석	김광일	이재훈
8월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정재기	이성범	이유진 김애순 윤영미
	2부 헌금위원	임주빈	정경례		
식당봉사	오늘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송인선	이혜선 송동준 이재선		
	다음주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임설희 이경아 송형운 박구병 정재기		
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오늘) 2여선교회 (다음주)		커피봉사	4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